

韓國建設技術연구원

“實用性기술개발 및
先進技術도입 加速化”



李 潤 植 院長

대망의 2000년대가 불과 10년 앞으로 성큼 다가 왔다.

올해도 국제경제 질서의 다변화와 기술보호 주의 파고 속에서 우리 경제발전의 전망에 명암이 교차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부문에서 地方化 時代의 진전과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한 건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만호 주택건설 및 신도시건설과 서해안 개발사업 등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부문에서도 1988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란·이라크에서의 본격적인 전쟁복구사업 참여, 시베리아 개발을 비롯한 東歐圈 국가들에 대한 가시적인 진출 등이 이러한 회복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우리 건설산업이 양적인 재도약은 물론 질적인 성장도 이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설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건설기술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1980년대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다양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기술 수준향상이 절실한 시기에 와 있으며, 미구에 닥쳐올 건설시장의 개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외로는 고부가가치의 해외건설수주를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므로 建設技術의 高度化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된 지 2년째를 맞았던 1989년에 건설기술연구원은 계획되었던 연구사업의 착실한 수행과 기술정보의 폭넓은 보급을 통하여 종합연구기관의 기반을 공고히 한 한해였다.

연구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평가를 위한 연구’ 등을 비롯 21건의 기본연구과제를 완료했으며, 건설계의 요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실용성을 제고시키는데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開院이후 처음으로 ‘우수연구과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관련인사의 호응을 받았으며, 기술보급강좌 및 세미나도 28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이전을 도모했다.

또한 産·學·研·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정보센터의 기술자료 발굴 및 수집을 확대하면서 건설계와 같이 호응하며 당면 애로 기술을 타개해 나가도록 진력해 왔다.

금년에도 건설업계의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의 시장에서 고도의 시공기술을 구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계획이며,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연구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實用性 技術開發

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는 각계의 요구와 자문을 거쳐 선정한 '道路橋 설계하중의 확률론적 분석' 등 20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관련기관 및 업계에서 의뢰한 수탁연구과제도 활발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公益 및 公共技術의 기초·응용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실용성 기술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技術政策 支援 강화

정부의 기술정책지원업무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중장기 건설기술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 정책연구와 수질·환경기술, 신주택기술, 극한지 건설기술 및 건설시공 자동화, 표준화 기술연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생산성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으로 얻어지는 기본 데이터는 연구원에 축적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재활용되도록 정보체계화 할 계획이다.

海外研究機關 교류

건설업계의 실무적용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고도기술 이전사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소련 과학원 산하 '凍土研究所'와 금년 2월 중에는 서울에서 '국제 극한지 건설기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9월에는 日本 '國土開發技術研究센터'와 '韓·日 건설기술세미나'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해외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도입을 가속시키고, 연구인력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류대상국을 다변화시키고 기술정보의 교환과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技術情報 보급 확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술 정보센터'의 초기 운영기반을 다지고, 본격적인 회원제도운영과 자료수집·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수요자들이 국내외의 기술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인 '建設技術情報'誌는 월별 공동주제를 채택하여 심도있는 집필과 신기술을 소개토록 함으로써 연구원과 건설계간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채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증연구의 촉진과 기술정보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연구실험기자재 및 정보기기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단합된 노력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관계자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도 1980년대를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쌓아올린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기술경쟁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어 産·學·研·官의 연구능력 결집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믿어진다.

새해에는 우리 건설산업을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산업활동이 활기를 더 해갈 것으로 기대된다.